

월요논단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재난당한 형제국 튀르키예 재난지역으로 떠나며

부족한 듯하다. 지금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나서 이재민 캠프와 주변 도시로 흩어진 이재민 구호활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서귀포 중앙교회(이상호 목사)는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구호하기 위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몰도바에 설치된 난민 캠프를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과 발전기, 샤워 시설 등을 지원했고 난민캠프 어린이를 위해 학용품과 더불어 VIVA스포츠에서 기증한 상당량의 공을 지원해 삭막한 캠프촌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게 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회적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 2월에도 이들 캠프들에 약 5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스러울 수 있으나 뜻을 같이하는 좋은 파트너인 '제주 시에나 그룹'(토스카나호텔, 시에나CC, 시에나리조트)과 여성 재테크 모임(대표 유수진)인 '부자 언니들'이라는 일반인 단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가능했다. 지난해 이 세 단체는 뜻을 모아 제주도 공동 모금회에 튀르키예 재난 구호금으로 2억 원을 기탁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된 서귀포 중앙교회는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재난 소식을 듣고 현지 구호활동을 위해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렸다.
이번에도 교인들의 헌신과 더불어 '시에나 그룹'과 'RS 사랑나눔'(부자언니들)이 서귀포 중앙교회 TF팀의 현지 구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현장에서 구호가 필요한 적재적소를 찾아 지원하

고 지속 가능한 후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현지와 소통하며 얻게 된 정보에 따르면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 재난지역이 광범위하고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사회 분위기로 현장 접근이 쉽지 않으며 치솟아 오른 물가와 구호 물품을 탈취당할 위험, 보건·의료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TF팀은 재난을 당해 망연자실해 있는 이재민들과 함께 울고 작은 정성을 나누면서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우리의 활동 내용과 정보는 이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원에 나설 기관이나 단체와 제한 없이 공유할 것이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로마서12:15)”

사설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 서둘러야

제주의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있다. 떠나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할 곳과 일할 사람의 기대의 차이를 미스매칭 때문에 떠나는 사례도 많다.
제주지역 고용률은 전국 최고지만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은 2차 산업 비중은 낮다. 특히 3차 산업 고용률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비해 높다. 또 사업장 대부분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위주의 영세업체가 주류다. 근로자당 임금도 월 32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보다 높아 채용과 퇴직이 빈번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해만 제주지역 20대 청년 1510명이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일자리가 있어도 숙련도·임금·정보의 불일치 때문에 취업

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마찰적 일자리 미스매칭도 심화되고 있다. 도내 마찰적 미스매칭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75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내 청년 절반 가량이 일자리와 희망 일자리에 대해 간극을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미스매칭은 결국 기업들에게는 인력난을, 구직자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의 시급함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단기간에 창출할 수 없다. 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체질개선과 기업의 임금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 일자리 박람회 정기 개최, 구직·구인정보 제공 확대, 취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도 병행돼야 한다.

열린마당

2023년 개학 맹심들 흥영 운전 흡써



백 현 석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어나오는 어린이들은 없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무엇보다 어린이를 먼저 생각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사소하지만 올바른 운전 습관들이 모여 우리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경찰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 개선, 교통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 안전은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줘야 할 것이다.

부모님들이 “신호등이 초록 불이더라도 항상 오른쪽 왼쪽을 잘 살피고 다녀라”, “초록 불이 깜빡일 때 뛰어서 건너면 안 된다” 등 어린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비친다.

개학을 맞아 즐겁게 웃으면서 뛰 어노는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하고 횡단보도·건널목을 지날 때에는 일시 정지에 갑자기 뛰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지난달 민원 증가세 전국 최고

485건 전월대비 101.2% 증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능정보기술(AD) 등을 적용해 지난달 전국 지자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발생량은 총 95만4010건으로 전월(98만6935건) 대비 3.3% 감소했으며, 이중 광역자치단체의 민원은 7만9067건으로 전월 대비 13.6% 감소했으나 제주도는 485건으로 전월(241건) 대비 101.2%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의 민원 제안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민원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우 안정화 사업 조기 지원”

○...한우 사육농가가 최근 국제 곡물가·환율 상승, 경영비 부담, 과잉 사육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산지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사업 조기 추진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

시는 한우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암소 자율 감축(1억3000만원),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21억원1900만원), 노동력 절감 기계장비 지원(4억1700만원),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2억43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시 관계자는 “올해 국내 한우 사육두수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우산업 안정화 지원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언급.

인류 유산 제주해녀, 명맥 유지 만만찮다

제주해녀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단순한 감소세가 아니라 매년 200명 가까운 해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녀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가 앞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될 정도다. 제주도가 이같은 상황에서 해녀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해녀 수는 2019년 3820명에서 2020년 3613명, 2021년 3437명, 지난해 3226명으로 나타났다. 3년 새 해녀가 594명이 줄어든 것이다. 현재 활동하는 해녀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64.8%(2090명)에 이르러 있다. 반면 50세 미만 젊은 해녀는 89명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신규 해녀가 부쩍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2019년 49명,

2020년 36명, 2021년 38명, 지난해 28명이다. 신규 해녀로 가입하는 인원은 매해 3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주해녀가 서서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제주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녀 양성대체를 마련하고, 젊은 해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학교 2개소 운영 지원과 어촌계 가입비 1인당 100만원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다시피 공동체문화를 지키고 제주바다를 지키는 해녀는 인류의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 만큼 제주도는 해녀를 보호·육성하고, 해녀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전에 관망, 방목, 제초 등 같은 날 시종규칙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백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가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명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시면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식식품의학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향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중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백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략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소송소재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주소창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차고지/주차장
시의 자기차고지갯기사업
市 지원 90%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자기차고지갯기사업 No.1 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차보수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